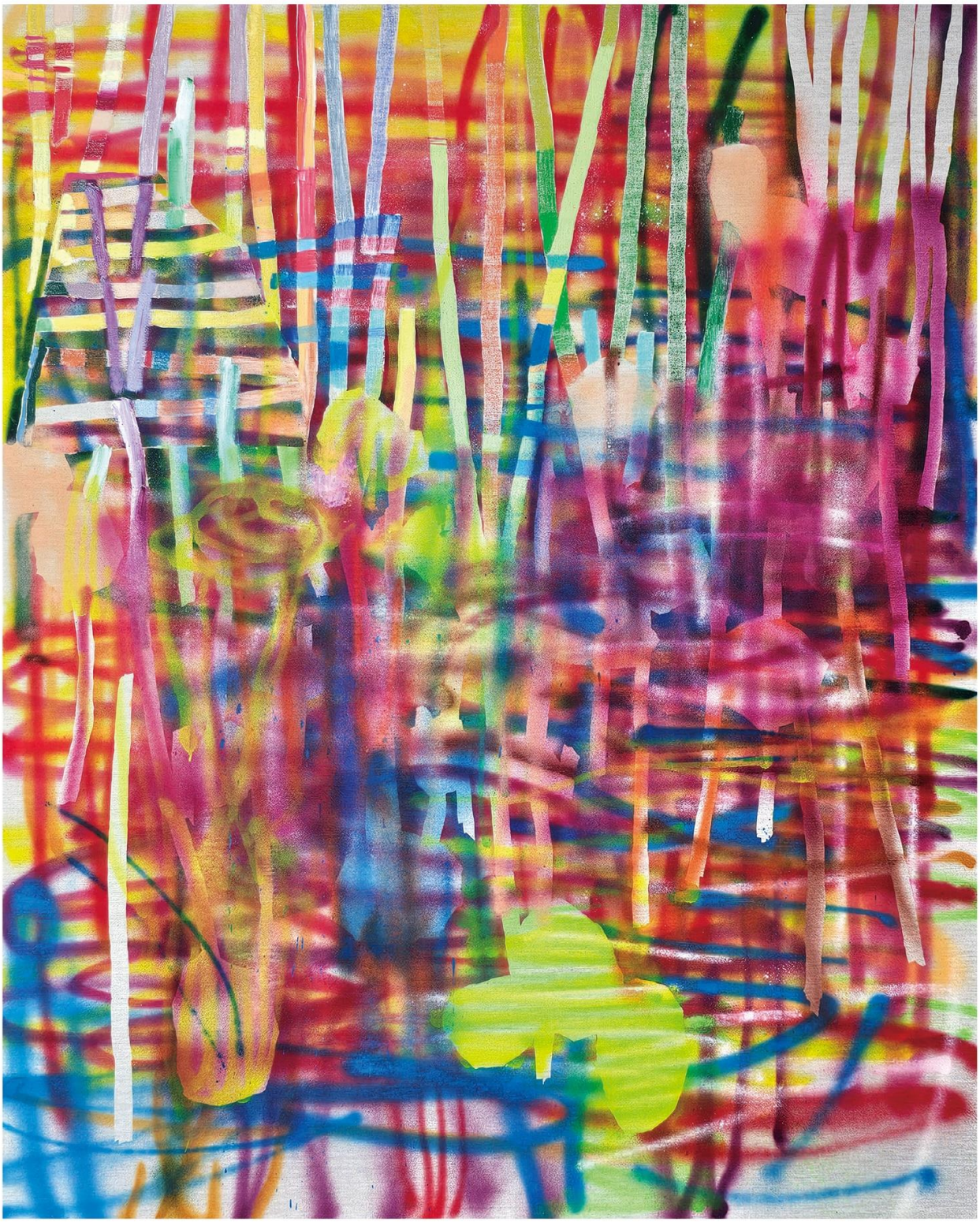


affect 162.2×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촉발 affect 소영란 So, Young Ran

2024. 7. 10. Wed - 7. 22. Sun

충북갤러리 인사아트센터 2층

Opening. 2024. 7. 10. Wed pm 5:00

충북갤러리 후원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Artist

소영란

SO, YOUNG RAN

개인전 21회/ 부스전 12회

2024
네오아트센터 초대개인전 (네오아트센터, 청주)

2022
온유갤러리 초대개인전 (온유갤러리, 안양)
청주시립미술관 로컬프로젝트 2022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코리아 아트페어 부스개인전 (코엑스A홀, 서울)

2021
청주교육대학교 초대개인전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 청주)
제이큐브미술관 초대개인전 (제이큐브미술관, 영월)
잇다스페이스 공모초대개인전 (잇다스페이스, 인천)

2020
17회 화양연화 초대개인전 (갤러리 더퍼플 2관, 3관, 4관, 아산)
16회 Nostalgia 초대개인전 (갤러리정스, 청주)
15회 GGI갤러리 초대개인전 (예끼마을 GGI 갤러리, 안동)
14회 소항갤러리 초대개인전 (헤이리 예술인마을, 파주)
13회 예일갤러리 초대개인전 (예일갤러리 /청주)

2019
12회 소영란 개인전(그림손갤러리, 서울)

2018
S-ARTSHOW 부스개인전 (S GALLERY, 서울)
Gallery H 초대개인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서울)
공군사관학교 도서관개관 초대전 (청주)

2017
J큐브 미술관 초대개인전 (영월)
청주아트페어 부스개인전 (충북 연초제조장)

2016
숲속갤러리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정봉기 갤러리 초대개인전 (정봉기 갤러리, 충주)

소영란

SO, YOUNG RAN

개인전 21회/ 부스전 12회

2015
BK 갤러리 초대 개인전 (BK갤러리, 대전)
인천아트페어메세나 (인천종합예술회관전시실, 인천)
스페이스 모하 초대개인전 (모하갤러리, 동탄)
메르헨 초대전 (대전)

2014
개인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K-아트 프로젝트전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 서울)

2013
홍콩뱅크아트 (홍콩 상그릴라 호텔, 홍콩)

2012
충북 아트페어 부스 초대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2011
scotlandstranraer ss아트쇼 (H.G.C art museum)
센스티브티 코리안아티스트 초대전
(에딘버리 리버튼 churchgallery)
KNAF 군집개인전 (청주예술의전당 제1 전시실)
국제 드로잉전 부스개인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0
THE 1stXINING CHINA & KOREA ART FAIR
(중국 청해성 서녕시)
청주 아트 페어 부스개인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1994
개인전 (세종갤러리, 서울)

소영란

SO, YOUNG RAN

단체전 다수

2022
GRAC2 특별초대전 (루하갤러리, 서울)
마이웨이전 - 안부를 묻다 (교동미술관, 전주)
제21회 청주여류전 정기전 (숲속갤러리, 청주)
문래아트페어 MOAF2022 (아트필드 갤러리, 서울)
드로잉코드 누드크로키 (숲속갤러리, 청주)
20인 초대전 (춘복여관, 대전)
드로잉코드전 (숲속갤러리, 청주)
HELLO2022전 동강에서 만나다 (제이큐브 김보연미술관, 영월)
아트테크(Art-Tech)전 (갤러리 청주, 청주)
봉방어울림센터 개관기념 안디아모전 (봉방어울림센터갤러리, 충주)

2021
뷰티인그레이스 그룹전 (롯데타워 1층 어바웃프로젝트라운지, 서울)
부산 My Way전 (부산은행갤러리, 부산)
제26회 계룡산국제춤축제 11인의 춤드로잉과 사진전 (공주문화원전시실, 공주)
청주여류작가회전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드로잉코드전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청주)

2020
드로잉코드 정기전 (꽃이피는갤러리, 청주)
혜화아트센터 특별한 선물(혜화아트센터,서울)
My Way전 (달빛갤러리, 여수)
공통분모 몽상전 (갤러리청주, 청주)
청주현대미술작가회 오아시스전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관전시실, 청주)
제25회 계룡산국제춤축제 드로잉전 (공주문화원전시실, 공주)
어쨌거나 My Way전 (전주교동미술관, 전주)
대구예술발전소 기획전시, 각각의 색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갤러리 별 9인 기획 단체전, Portion of Nine(갤러리 별, 부산)

2019
Nouveau Dialogue (Galerie 89, 파리)
제18회 청주여류작가전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소영란

SO, YOUNG RAN

단체전 다수

2018
대청호를 품은 대지와 사람들 (마불갤러리, 청주)
제17회 청주여류작가전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청주)
6人 6色 기획전 (오스갤러리, 완주)
ART MARKET STAMP (전주교동미술관, 전주)
새만금 (휘목미술관, 부안)
영월현대미술제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

2017
6人 작가 동행전 (문화공간모악, 완주)
제16회 청주여류작가전 (청주예술의전당,청주)
영월현대미술제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

2016
청주미술협회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선으로 말하는 세상 (백민미술관, 보성)
충북향토작가 문화원초대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감성과 창조의시대현대미술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영월현대미술제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
갤러리청주 개관기념전 (갤러리청주, 청주)
제15회 청주여류작가회전 (숲속갤러리,청주)

2015
갤러리청주 선물전 (갤러리청주, 청주)
25회 森木會전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nude 見聞畵 (아트스페이스hoseo, 서울)
16회 21C국제미술문화교류협회전 (평택호예술관, 평택)
동강을 바라보다 (영월 예술문화회관, 영월)
지역구상작가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진주의사계 아름다운도향전 (이성자미술관, 진주)
한일 현대미술교류전 (우민아트센터, 청주)
제14회 청주여류작가전 (청주예술의전당,청주)

소영란

SO, YOUNG RAN

단체전 다수

2014
예술로 체험하는 녹색도시 청주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충북구상미술 향토작가초대전 (청주예술의전당.청주)
한국캐나다 수교50주년기념회 목우회회원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쌀한가마니전 (갤러리청주, 청주)
청주미술협회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자연과 과학 형상미학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목포 삼목회초대전 (목포예술문화회관, 목포)
김환기화백100주년 기념전 (목포예술회관, 목포)
진주의사계 아름다운동행전 (경남문화예술회관, 진주)
6월전 (M갤러리, 대전)
동강현대미술전 (영월 예술문화회관, 영월)

2013
수원 화성을 가다 (수원 문화 재단 전시관)
돗토리현 청주미협교류전 (돗토리현 박물관)
기획 초대 인체 드로잉전, 선의 향연 몸을 그리다 (갤러리 K)
제14회 청록사진연구회 사진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2012
한국 드로잉 50년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2011
한국 미협 회원전 및 한중 교류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한 스위스 수교 48주년 서울 아트 바젤전 (갤러리 타블로)
KNAK & FASTVAL 한국자연주의 현대초대작가 12인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제4회 태안돛대 미술제 (태안 청포대 해변)
제15회 정관 김복진추모 미술전 (대청호미술관)
자연과 과학의 어울림이색표현 (청주예술의전당 제2전시실, 청주)
제4회 시도 여성 화가전 (MG 갤러리)
목포 삼목회. 청주미술 협회전 (목포문화 예술회관)
제6회 한중 미술, 서예교류전 (예술의전당 대전시실)
제10회 충북미술협회 회원전 (예술의전당 대전시실)

소영란

SO, YOUNG RAN

단체전 다수

한국 자연주의 현대초대작가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한국 미술의 새아침전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갤러리 타블로 이전기념-한국미술의 새물결전(갤러리 타블로)
아시아 스페이스전 (스카이 연)
목포 여성작가회 초대전 (목포예술문화회관, 목포)
새로운 시각의 표현현대미술 초대작가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목포 삼목회-청주 초대 작가 교류전 (목포예술문화회관, 목포)
김복진 선생 추모미술제 (대청호미술관, 청주)
청주 여류화가회 정기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드로잉 코드전 (딸기골)
청주 사생회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Art Market shopping Guidebook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청주대 평생교육원누드 크로키 회원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충북대 평생교육원누드 크로키 회원전 (개신문화원, 청주)
충북대 평생교육원누드 크로키 회원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Drawing-한국 인체 드로잉의 오늘전 (갤러리 타블로)
몸짓 (문화공간 브룩스)
누드 크로키전 (홍 갤러리)
People in the fifth floor (인데코 화랑)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중간지대/문화의 수리공 (인사갤러리)
뉴폼 93전 (윤 갤러리 기획)
미술 세계 대상전 (경인미술관)
대중 매체를 통한이미지전 (갤러리 도올 기획)
한전 미술 대전 (한전 갤러리)
Stectrm stectrm 블랙 라이트전)
새로운 정신전 (제 3 갤러리)
불연속전 (제 3 갤러리 기획)
자연과 인간 그리고예술전 (소나무 갤러리)
화양리 술꽃전 (세종 화랑)

소영란

SO, YOUNG RAN

주요 수상경력

주요 수상경력
1990 미술세계대상전 특선
1991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991 한전 미술대전 서양화부문 금상
2008 세계평화 미술대전 입선
2010 세계평화 미술대전 비구상부문 입선

작품소장처
청주시립미술관(청주), 네오아트센터(청주)
군민복합 해군기지(제주), 개인소장, 아트뷰 사옥

현재
한국미협 청주미협회원, 충북미협 회원, 청주 여류 작가회, 드로잉 코드 회원

거주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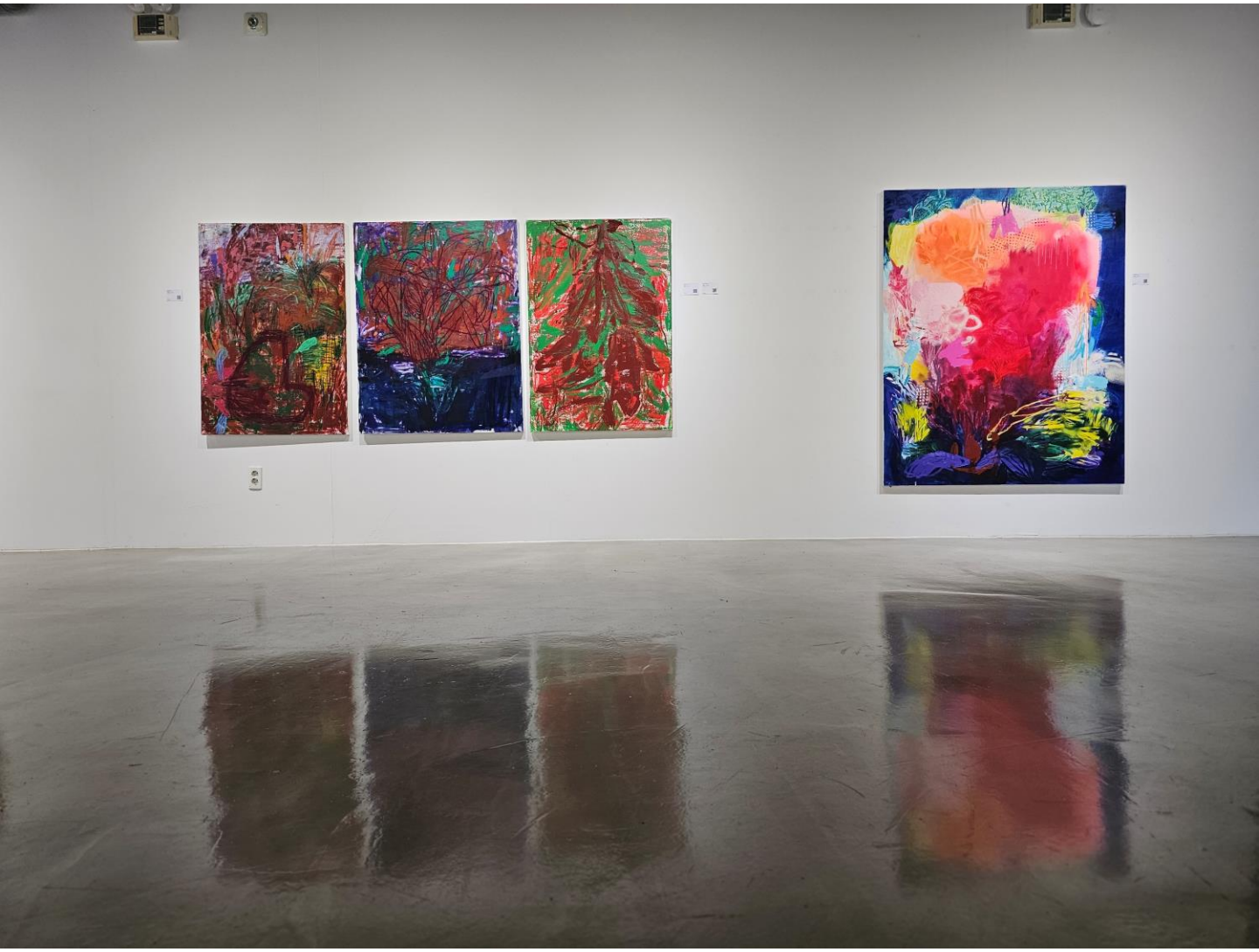
작업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116번길 30, 3층 소영란 Art Studio

M. 010-8951-0752
T. 043-297-0755
E. syr48067729@daum.net

Artist's Note

그래서 이제 당신은 편안하신가요?

지난시간 내가 인식하는 의자는 권력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했다. 첫 개인전 작품제목 또한 "그의 권좌는 주롱당하고 있다"라고 썼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의미로 해석 하였으며 인간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욕구와 욕망에 관한 해석이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의자의 양면성에 관한 관심과 이미지의 해석, 표현욕구는 꾸준히 이어졌고 현재의 나에게 의자에 상징성은 편안한 개인적인 삶에서 이어지는 안락함에 이미지로 인지하고 사용한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권의 틀 속에서 벗어나 그 틈사이 경계에서의 나의 자존 이 포함된 상징적 은유이다.



촉발은 경계 어느 부분을 밀고 올라오는 힘이다 이것은 작가의 일상의 어느 순간 무의식의 상태로 밀고 올라오는 그 지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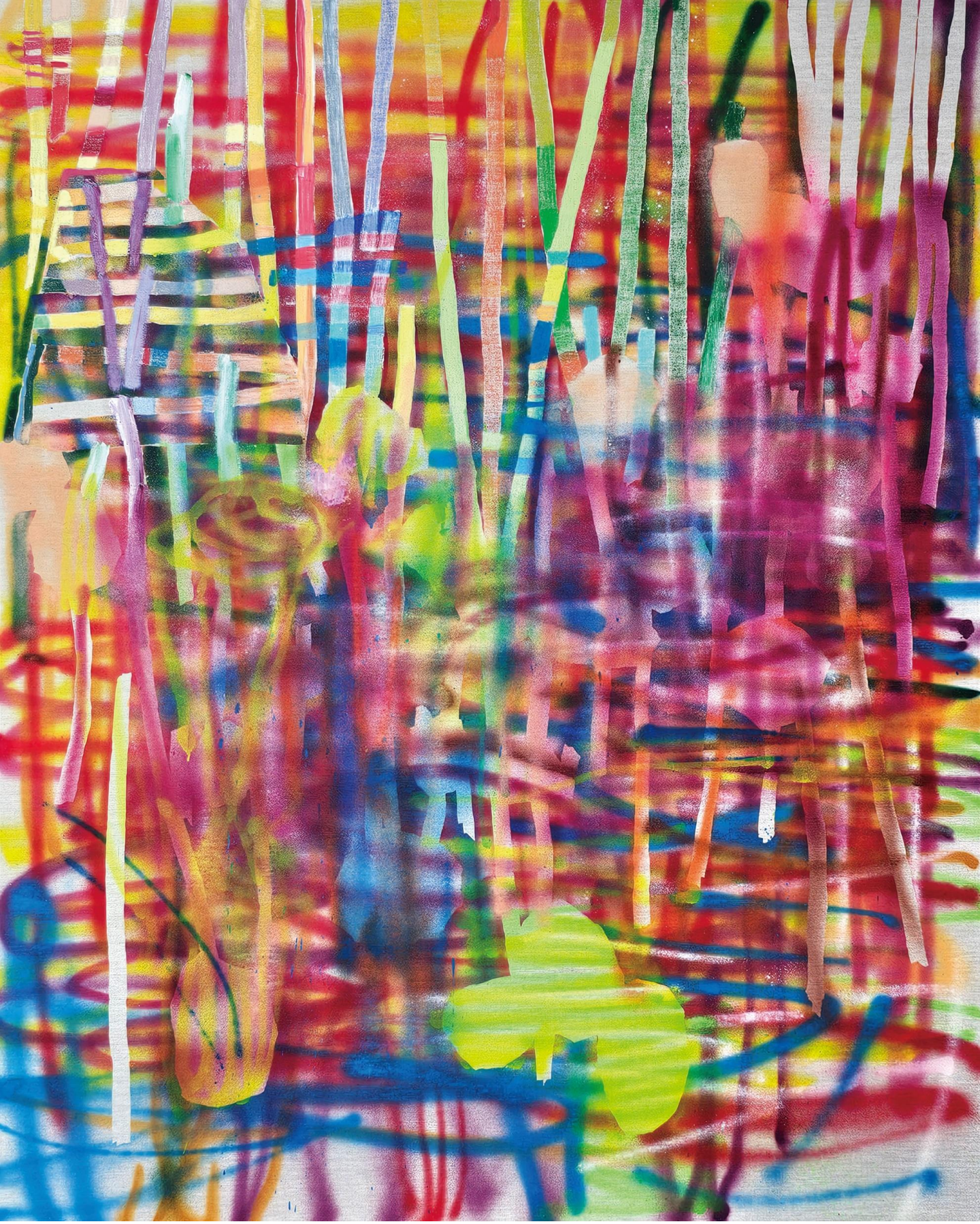
그 순간을 위하여 작가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일상을 컨트롤하며,
한순간에 에너지를 밀어 올린다.
그러므로 작가의 삶이란 스스로 지난한 과정을 감내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작가의 태도와 일관된다. 표면에 드러나는 기술이나 재능보다 작가가 대상을 인식하는 관점이 작품에 진정성을 획득하는것이다.

나의 작업은 들여다보기와 바라보기 시점이 양분화된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들여다보기 작업은 대상을 관찰하고 집중하여 남겨지는 잔상을 다시 재조합 해내는 과정이고 관람자 입장에서는 관자의 경험으로 스스로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관객 역시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길 바란다.
이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돼는 요소가 돼어진다.
화면에 모호함과 양가적 속성이 순간의 직관에 따른 즉흥적인 드로잉으로 표현한 작품이 어떻게 해석될지 궁금해 지는 이유이다

SOVEREIGN

Works



affect

162.2 × 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4_1

affect

162.2 × 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4_2

affect

162.2 × 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4_3

a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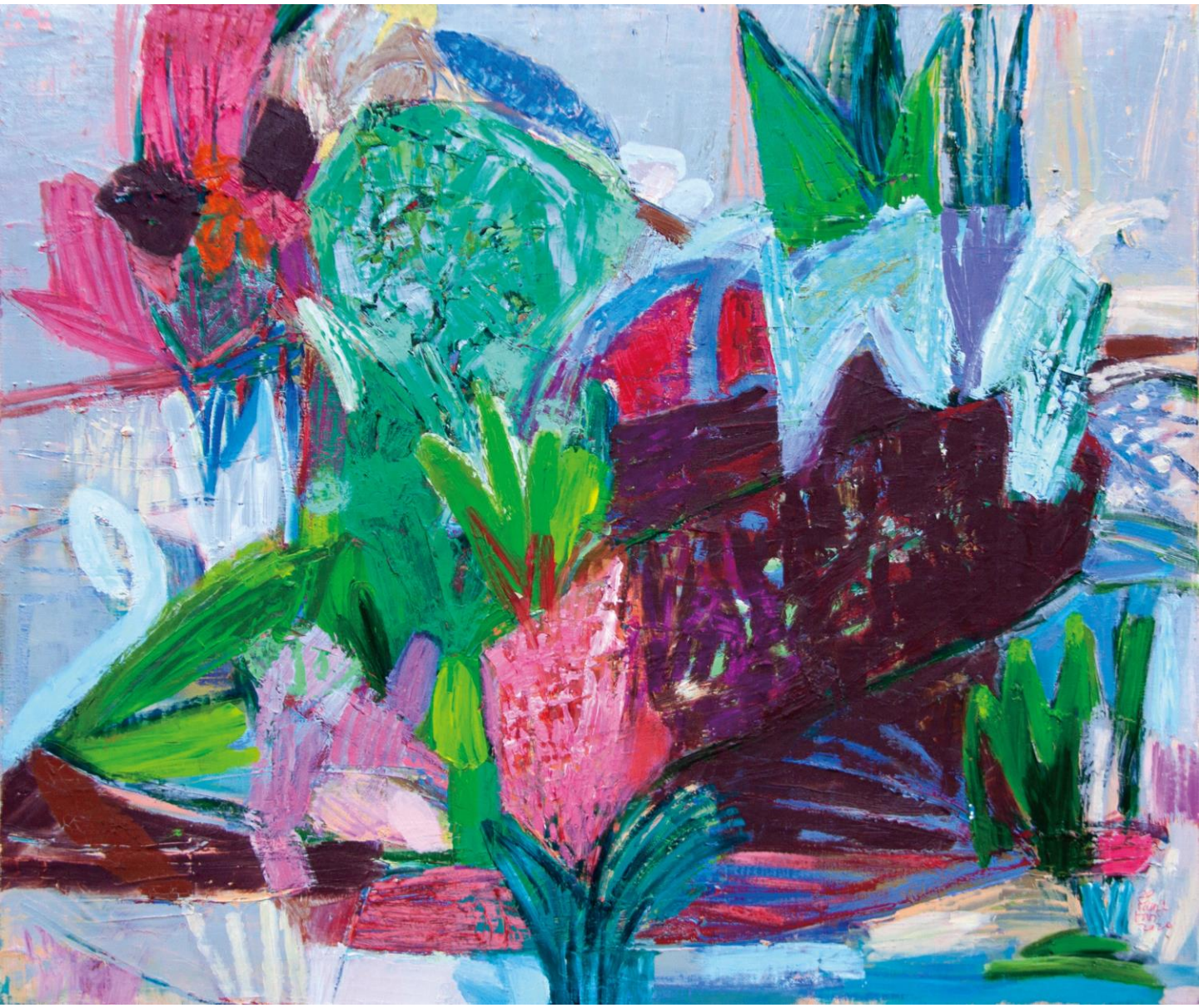
45.5×53.0cm
Oil on canvas
2023_1

affect

53.0 × 45.5cm
Oil on canvas
2024_1

affect

60.6 × 72.7cm
Oil on canvas
2023_1



affect

60.6 × 72.7cm
Oil on canvas
2023_2

affect

72.7 × 60.6cm
Oil on canvas
2023_1

a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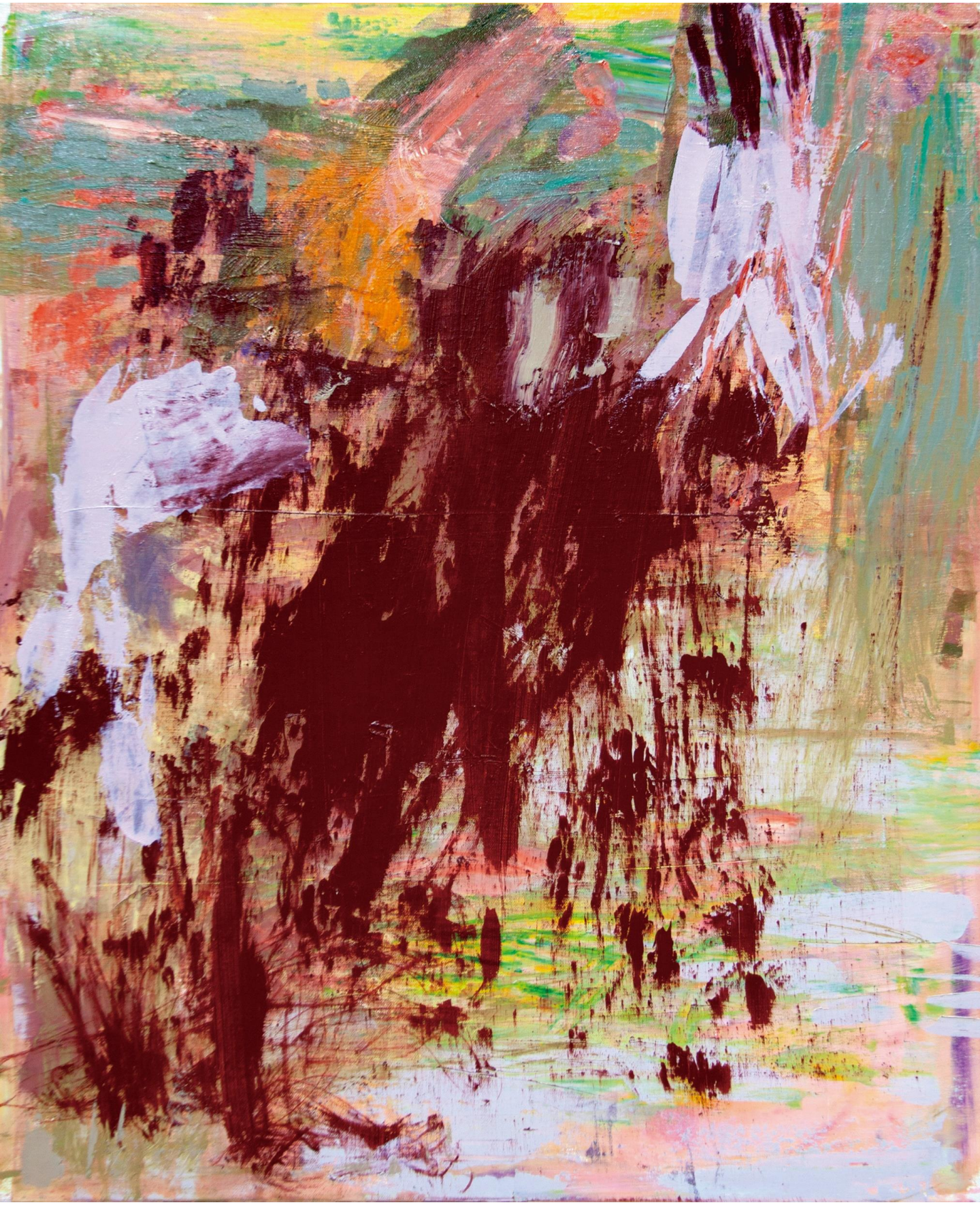
72.7 × 60.6cm
Oil on canvas
2023_2

affect

72.7 × 60.6cm
Oil on canvas
2023_3

affect

72.7 × 60.6cm
Oil on canvas
2023_4



affect

72.7×60.6cm
Oil on canvas
2023_5

affect

72.7 × 60.6cm
Oil on canvas
2023_6

affect

72.7×60.6cm
Oil on canvas
2023_7

affect

72.7×60.6cm
Oil on canvas
2023_8

affect

72.7 × 60.6cm
Oil on canvas
2023_10

affect

72.7×60.6cm
Oil on canvas
2024_1

affect

72.7×60.6cm
Oil on canvas
2024_2

affect

72.7×60.6cm
Oil on canvas
2024_3

affect

72.7×60.6cm
Oil on canvas
2024_1

a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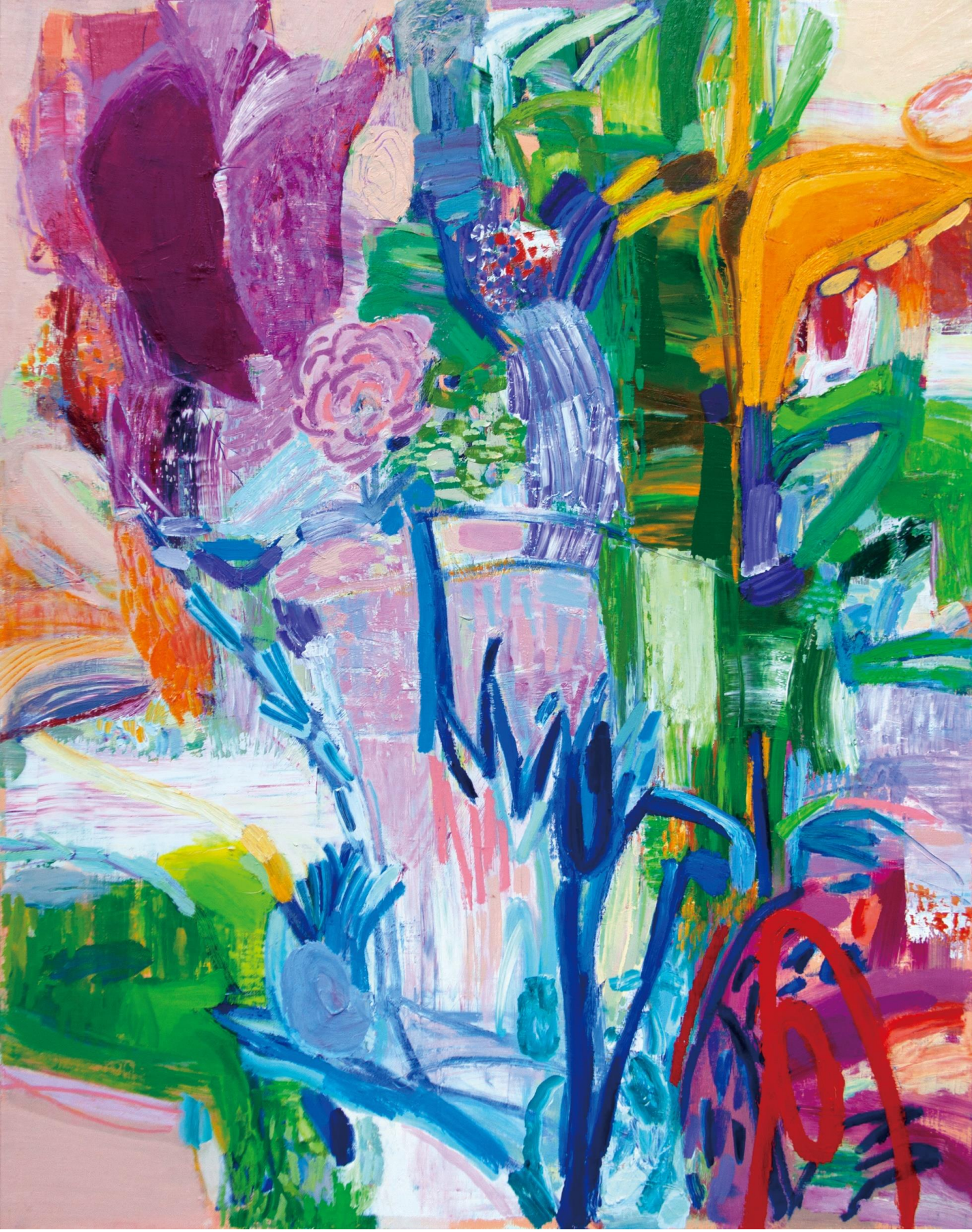
90.9 × 65.1cm
Oil on canvas
2023_1

affect

90.9 × 72.7cm
Oil on canvas
2023_1

affect

90.9 × 72.7cm
Oil on canvas
2023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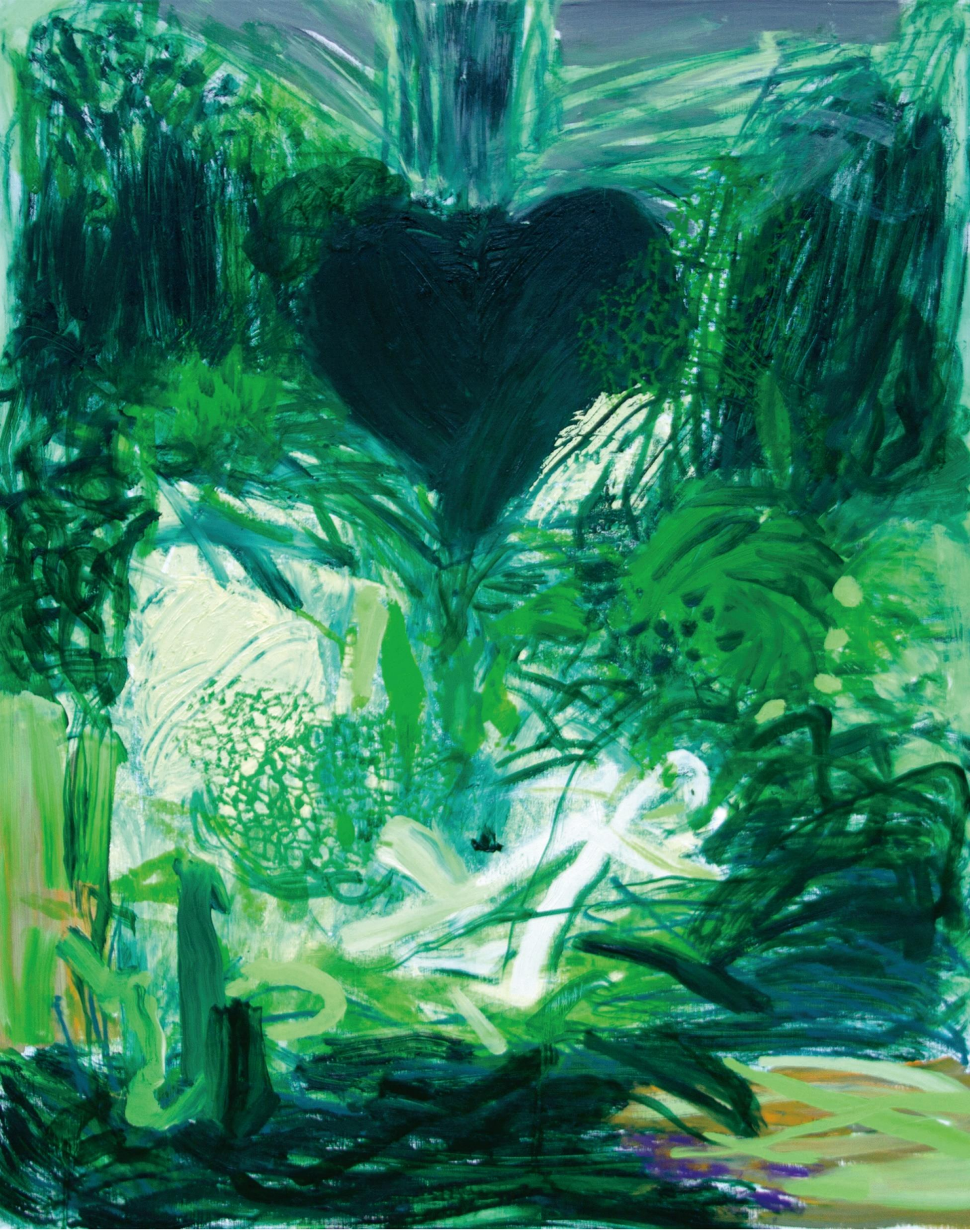


affect

90.9 × 72.7cm
Oil on canvas
2023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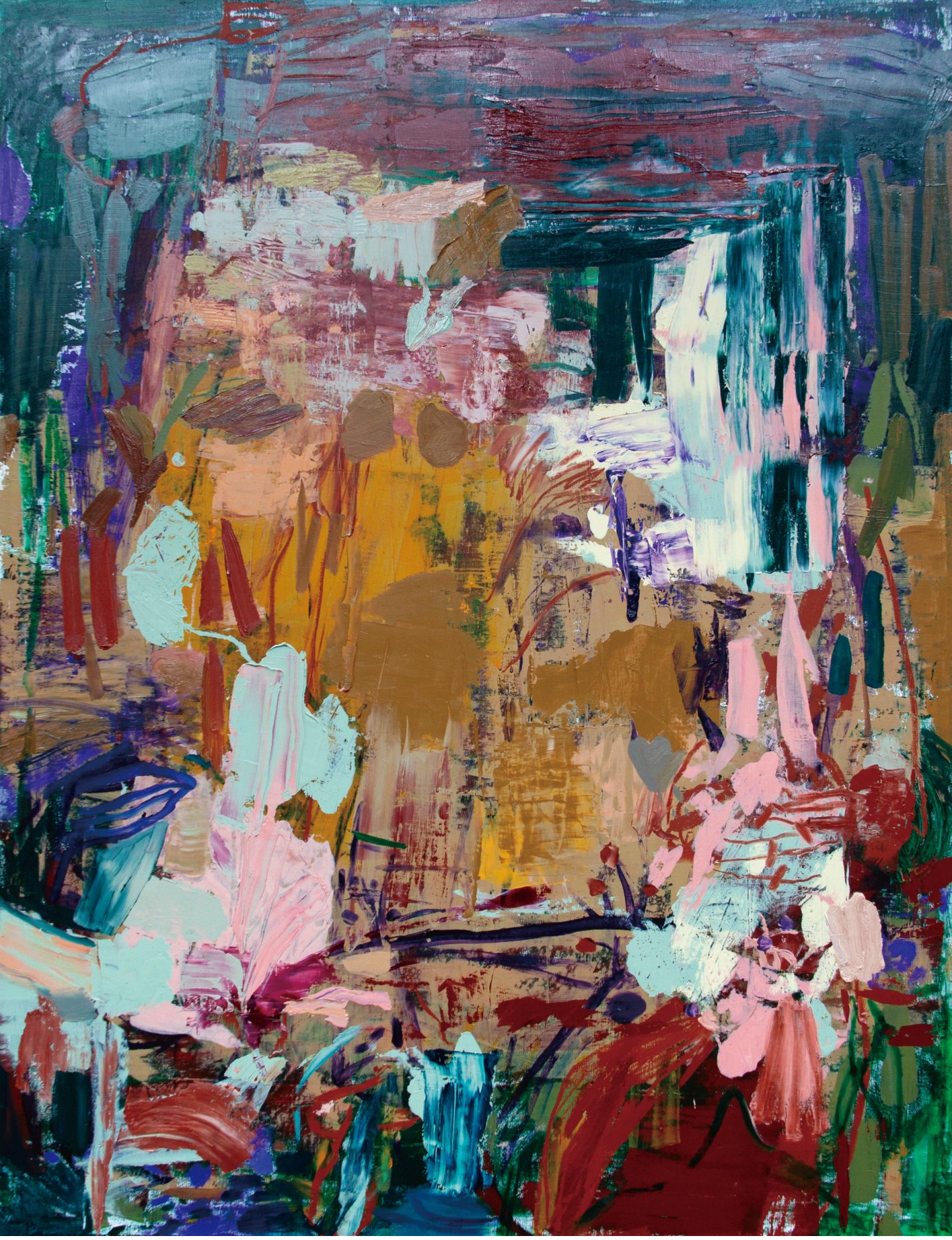
affect

90.9 × 72.7cm
Oil on canvas
2024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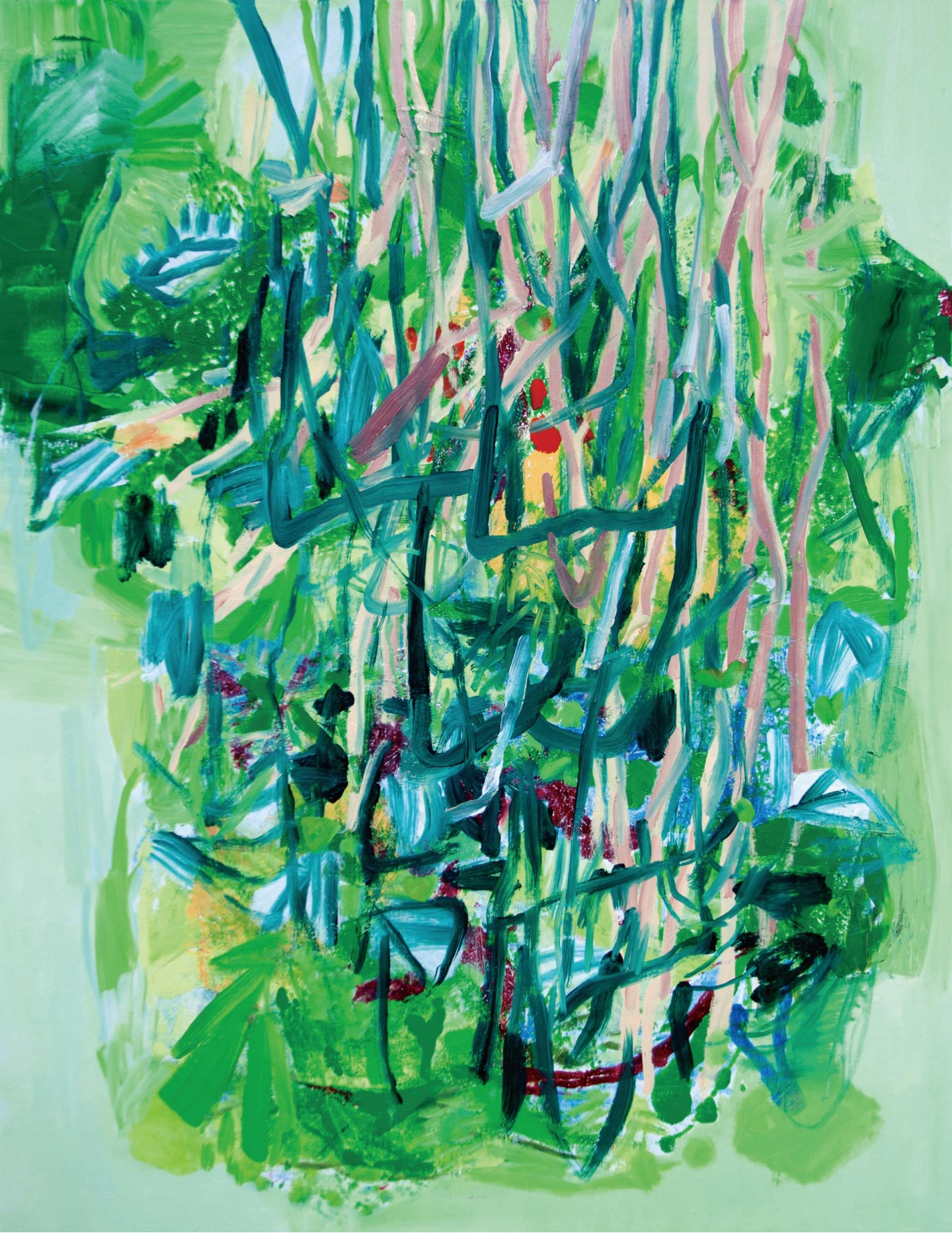
affect

90.9 × 72.7cm
Oil on canvas
2024_2



affect

116.8 × 91.0cm
Oil on canvas
2023_2



affect

116.8 × 91.0cm
Oil on canvas
2024_1

affect

116.8 × 91.0cm
Oil on canvas
2024_2

affect

162.2 × 130.3cm
Mixed media on canvas
2023

affect

162.2 × 130.3cm
Oil on canvas
2023_1

affect

162.2 × 130.3cm
Oil on canvas
2023_2

affect

162.2 × 130.3cm
Oil on canvas
2023_3

affect

162.2 × 130.3cm
Oil on canvas
2023_4

Timeless

40.8 × 31.8cm
Oil on canvas
2023_1

Timeless

40.8 × 31.8cm
Oil on canvas
2023_2

Timeless

45.5 × 37.9cm
Oil on canvas
2023_1

Timeless

45.5 × 37.9cm
Oil on canvas
2023_2

Timeless

45.5 × 37.9cm
Oil on canvas
2023_3

Timeless

53.0 × 40.9cm
Oil on canvas
2023_1

Timeless

53.0 × 45.5cm
Oil on canvas
2022_1

Timeless

53.0 × 45.5cm
Oil on canvas
2023_1

Timeless

53.0 × 45.5cm
Oil on canvas
2023_2

Timeless

53.0 × 45.5cm
Oil on canvas
2023_3

Timeless

72.7 × 60.6cm
Oil on canvas
2023_2

Time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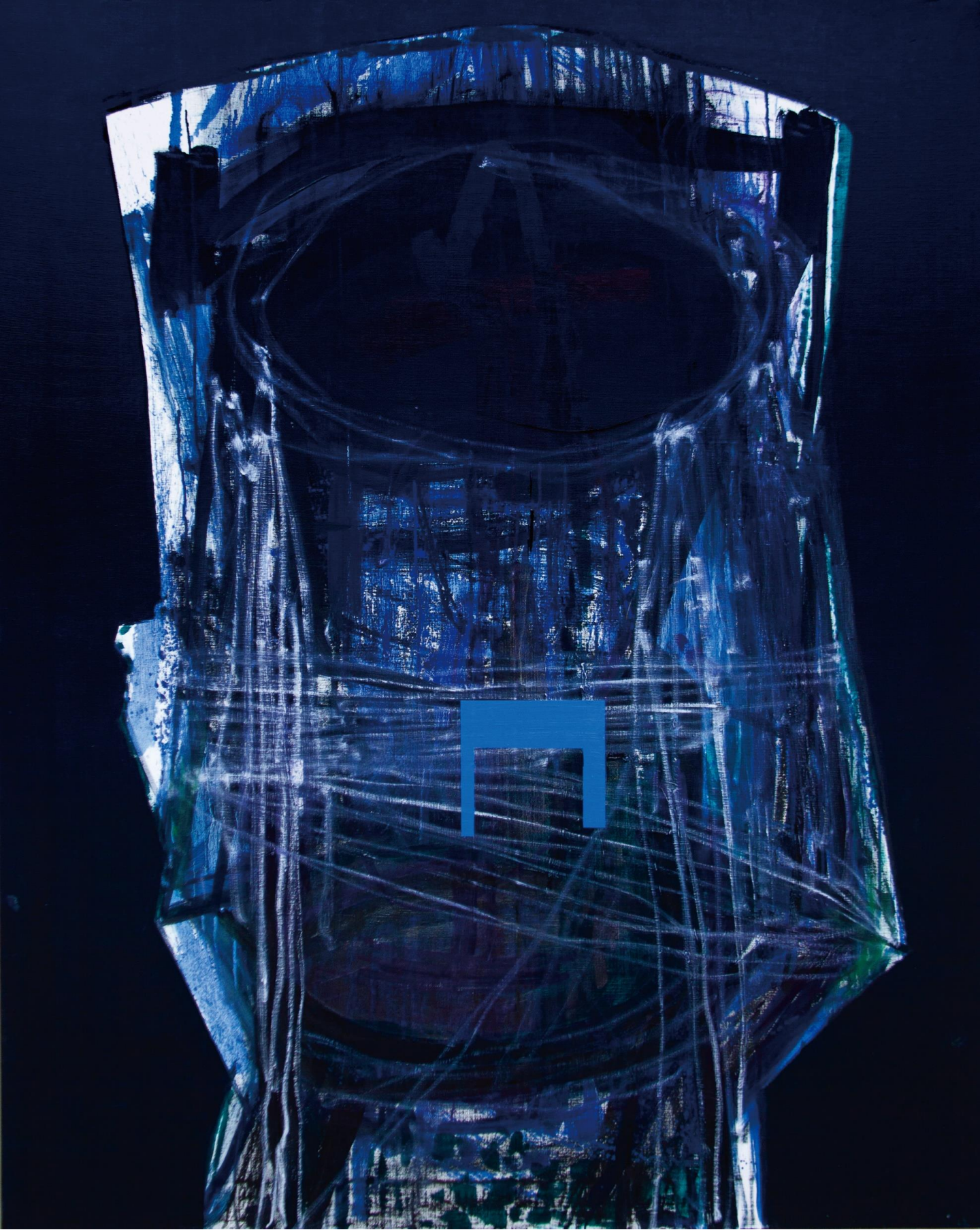
72.7 × 60.6cm
Oil on canvas
2023_9

Timeless

72.7×90.9cm
Oil on canvas
2023_1

Timeless

90.9 × 72.7cm
Oil on canvas
2023_1



Timeless

162.2 × 112.1cm
Oil on canvas
2023_1

Timeless

162.2 × 112.1cm
Oil on canvas
2023_2

Timeless

162.2 × 130.3cm
Oil on canvas
2023_1

Timeless

162.2 × 130.3cm
Oil on canvas
2023_2

Critique

색채와 자유로운 붓질의 만남, 그 울림

김종근 (미술평론가)

그는 어떠한 대상도 묘사되지 않은 채 색채만으로 구성된 그림 한 폭에서 눈부신 감동을 발견했다. 우연히 산책에서 돌아온 후 떨어져서 뒤집힌 자신의 그림에서 였다.
이 우연한 경험을 시작으로 그는 점,선,면 그리고 색채를 자유롭게 조합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1908년 바실리 칸딘스키 추상회화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그는 '색상은 건반이고 정신은 피아노, 화가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영혼을 울리는 손'이라며 바로 화폭 위에서 색채와 형태가 음악처럼 어우러지는 조화로서 새로운 예술의 탄생이 가능했다.
칸딘스키가 작품 제목에 붙인 즉흥, 작곡, 변주와 같은 단어에서 이러한 의도는 명백했다.
뜻밖에도 소영란 작가의 회화에서 우린 마치 칸딘스키 작품에서 경험했던 그런 신비로운 세계의 이미지가 오버랩 된다.
무엇보다 틀에 박히지 않고 정형적이지 않은 자유스러운 풍경이 그리고 붓질이 그 시각적 신선함을 느끼게 한다. 소영란 작가는 이러한 자신의 예술적 근원과 욕망을 '촉발 affect"이라고 명명했다.
이 용어는 작가의 일상에서 문득 어느 순간 무의식의 상태에서 떠오르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작품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지칭한다.
그 예술적인 감흥을 화폭에 펼쳐내는 강렬한 힘, 그것이 소영란이 풍경을 보고 해석 해내는 자유스러운 직관의 힘이기도 하다.
작가의 대형 화폭에는 그러한 예술적 충동과 감흥, 그리고 에너지의 흔적들이 색채와 선으로 곳곳에서 표출된다.
화면의 어느 부분, 어느 지점에서도 색이면 색, 선이면 선 주저함과 거침없음이 뚜렷하다.
소영란의 화폭에는 이처럼 칸딘스키적인 조형적인 요소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충실한 작품으로 완성된다.

색채와 자유로운 붓질의 만남, 그 울림

김종근 (미술평론가)

그러한 회화의 조형적 형상은 물 그리고 나무의 풍경, 숲의 형상과 식물의 형태들 모두가 작가의 주변에서 포착되는 정겨운 장면들이어서 해독 불능의 것처럼 난해하지 않게 읽혀진다.

물론 그 풍경들이 화폭에 들어올 때는 때때로 수려한 붓질로 화폭을 가로지르며, 다이내믹한 색채들과 만나 추상적인 흔적들을 드러낸다.

특히 작품 속에 출현하는 대부분의 그 장면들은 풍경 같은 풍경이거나, 풍경을 닮지 않은 풍경으로 매우 인상적인 아우라의 매력과 추상 개념의 울림을 건네주기도 한다.

그 풍요로운 풍경의 열린 스펙트럼에서 볼 때 소영란 작가는 추상작가이기도 구상작가이기도 한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두 얼굴의 야누스 얼굴을 공유하고 있다.

아마도 그러한 예술가의 본질적인 감성이 이토록 회화적인 감성을 넘치도록 세련되게 잘 짜인 구성처럼 조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매우 자유스러운 색채의 무게나 구성이 질서 있게 균형적인 무게와 형태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음악으로 치면 강약의 리듬을 화면에서 세련되게 박자로 구사한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을 보는 내내 작가의 생명체인 그림이 우리 마음에 심장을 흔들어 놓는 진동과 파장을 느끼게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작가의 내면에 메시지가 드러나는 창작의 뿌리에는 작가가 채집한 그 풍경에 대한 진정성과 뜨거움이 감정 이입되어 시각적 감정으로 전이된 것이다.

색채와 자유로운 붓질의 만남, 그 울림

김종근 (미술평론가)

그러한 회화의 조형적 형상은 물 그리고 나무의 풍경, 숲의 형상과 식물의 형태들 모두가 작가의 주변에서 포착되는 정겨운 장면들이어서 해독 불능의 것처럼 난해하지 않게 읽혀진다.

물론 그 풍경들이 화폭에 들어올 때는 때때로 수려한 붓질로 화폭을 가로지르며, 다이내믹한 색채들과 만나 추상적인 흔적들을 드러낸다.

특히 작품 속에 출현하는 대부분의 그 장면들은 풍경 같은 풍경이거나, 풍경을 닮지 않은 풍경으로 매우 인상적인 아우라의 매력과 추상 개념의 울림을 건네주기도 한다.

그 풍요로운 풍경의 열린 스펙트럼에서 볼 때 소영란 작가는 추상작가이기도 구상작가이기도 한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두 얼굴의 야누스 얼굴을 공유하고 있다.

아마도 그러한 예술가의 본질적인 감성이 이토록 회화적인 감성을 넘치도록 세련되게 잘 짜인 구성처럼 조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매우 자유스러운 색채의 무게나 구성이 질서 있게 균형적인 무게와 형태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음악으로 치면 강약의 리듬을 화면에서 세련되게 박자로 구사한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을 보는 내내 작가의 생명체인 그림이 우리 마음에 심장을 흔들어 놓는 진동과 파장을 느끼게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작가의 내면에 메시지가 드러나는 창작의 뿌리에는 작가가 채집한 그 풍경에 대한 진정성과 뜨거움이 감정 이입되어 시각적 감정으로 전이된 것이다.

색채와 자유로운 붓질의 만남, 그 울림

김종근 (미술평론가)

작가는 작업 노트에서 "작업은 들여다보기와 바라보기 시점이 양분화된 관점”으로 이루어진다는 작업과 관람자 처지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 영란 작품의 회화성은 풍경의 조형적 고려에서 자연을 채집하고 해석하면서 모리스 드니가 정의한 “회화는 색채로 뒤덮인 하나의 평면이다”라는 이념에 색과 자유스러운 선적인 요소를 부가한 것이다.
그만의 독특한 풍경 속에 휘둘리는 선들도 존재하지만, 그 풍경에서 가장 먼저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선을 아우르며 감싼 색채의 강렬함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영란 작가를 ‘추상주의자로 분장한 풍경화가’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감정의 전달에서 마치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경계를 다양하게 색채와 선으로 정직하게 경계를 넘나든다.
그리하여 어떤 시리즈의 풍경 일부에서는 매우 이성적인 감정선의 색채로 머물다가 실제 선 긋기의 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붓질에 명상적 태도를 엿보게 한다.
단연 추상화가이지만 가장 흥미로운 추상화에는 항상 구상적인 회화의 요소가 발견된다는 점을 우리는 소영란의 작품에서 경험한다.
작가는 작업실 근처 대청호 지역을 산책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작업의 영감을 얻는다고 했다. <Floating> 연작에 표현된 이 풍경들이 비록 실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녀는 산책 중 만난 자연의 색채로 대청호 풍경을 모두 가슴에 품고 아우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소영란 작가의 작품 앞에 서면 사유적이면서 사색적인 감정들이 솟아나고 거침없는 색채와 선들의 리듬에서 칸딘스키적인 추상화의 시각적인 감정에 무방비하게 납치당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층